

### 몽골의 종교와 현대 사회

Rustam Sabirov Assistant Professor  
Moscow State University

#### ■ 주요 내용

- 최근 몽골의 종교는 내부 정치, 문화,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
- 1990년 몽골의 사회주의 체계 붕괴 이후, 티베트 불교가 주류를 차지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종교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
- 몽골 내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는 각 종교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나 일부 종교는 사회 이슈에 깊게 관여하고, 종교 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려

## 1

## 이슈 현황

**☒ 최근 몽골의 종교는 내부 정치, 문화,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.**

- 몽골의 불교는 티베트 불교를 칭하며, 티베트인들의 망명 문제와 몽골 내 사회 활동에 관여해 목소리를 내고 있음.
  - 달라이 라마 14세를 비롯한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들은 몽골 내 정치적,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.
  - 티베트 불교 신자 비율이 높은 몽골에서는 공직자들 사이에서도 티베트 불교 지도자에 대한 인기와 신뢰도가 높음.
- 최근 경제적 동반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달라이 라마 14세의 몽골 방문과 사회 활동은 양국 간 외교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음.
  - 광물 교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몽골은 대부분 중국을 대상으로 광물 수출을 개시하고 있음.
  - 그러나 중국 정부가 달라이 라마 14세의 몽골 방문에 항의하자, 몽골 정부는 티베트 지도자의 국내 활동을 제한하고 있으며, 이는 현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.

**☒ 티베트 불교와 샤머니즘은 국가의 전통과 정체성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, 기독교와 개신교는 사회적 화합을 끌어내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음.**

- 샤머니즘을 숭배하는 종교인들은 자연, 환경 관련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, 환경 단체와의 교류와 자연 보존 활동을 펼치고 있음.
  - 샤머니즘(무속 신앙)의 지도자 격인 샤먼(무당)들은 몽골 내 환경 문제를 비판하고 정부에 대항하는 주도적 인물로 간주되고 있음.
  - 최근 불어진 몽골 노용(Noyon) 광산 탐사 반대 시위를 이끌었던 주요 인물로 무속 신앙의 샤먼들이 거론되고 있음.
  - 노용 광산을 비롯한 몽골의 주요 광산 탐사를 반대하기 위해, 2015년 울란바토르에서는 100명 이상의 주술사들이 모여 시위를 주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음.
- 몽골 내 기독교는 정책적, 정치적 이슈보다는 사회적 봉사활동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음.
  - 기독교는 몽골 정부에서 방치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의료 시설, 장애 아동 보호시설을 설립하는 사회 기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음.
  - 몽골 정부도 기독교인들의 친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, 기독교 측에서 인정한 선교사 및 교육자에 자유로운 입국을 허가해 주고 있음.

- 특히, 월드비전, JSC International과 같은 비정부 기구(NGO) 관계자들은 기독교인 신분으로 몽골 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음.

## 2 원인 분석

### 1990년 몽골의 사회주의 체제 붕괴 이후, 티베트 불교가 주류를 차지했던 이전 시대와는 달리 다양한 종교 신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함.

- 2010년 몽골의 1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통계 조사에 따르면, 38.6%는 무교이고, 61.4%(약 117만 200명)는 종교를 가진 것으로 집계됨.
  - 몽골 종교인의 86.2%는 티베트 불교 신자, 3%는 이슬람, 2.9%는 샤머니즘 신자로 조사됨.
  - 상대적으로 신흥 종교로 분류되는 기독교는 몽골 종교인의 2.2%를 점유하고 있으며, 0.4%는 기타 종교의 신자임.<sup>1)</sup>
  - 기독교 중 개신교가 가장 많은 신자를 보유하고 있으며, 3만 6,000명의 신자, 396개의 교회가 설립되어 있음.<sup>2)</sup>
  - 기독교와 같은 신흥 종교는 대부분 청년이거나 중년 신자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됨(25세~38세).<sup>3)</sup>
- 17세기 이후부터 몽골에서 가장 큰 종교적 영향을 미쳐온 티베트 불교는 1930년 사회주의 정부의 반종교 운동의 결과로 국민의 75% 이상이 무신론자, 무종교인이 되었음.
  - 1930년 이전, 티베트 불교는 몽골 역사에서 종교를 넘어 교육, 의료 등 사회적 역할을 도맡아 왔으며, 승려들은 존경의 대상으로 간주되었음.
  - 그러나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, 정부의 종교 탄압과 반종교 운동이 전개되자 티베트 불교에 대한 전통이 무너지기 시작함.
- 1990년 이후, 사회주의 정권이 쇠퇴하고 민주화 정권이 들어서면서 티베트 불교의 부흥이 시작됨.
  - 국가적으로 티베트 불교 부흥이 시작됐지만,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승려, 문헌 자료, 불교 시설이 부족한 상황에 직면함.
  - 국외 불교단체, 바쿠라 린포체(Bakula Rinpoche), 달라이 라마 14세가 주도한 티베트 불교 부

1) Khun am, oron suutsny 2010 ony ulsyn toollogyn ur dun. [http://www.toollogo2010.mn/doc/Main%20results\\_20110615\\_to%20EZBH\\_for %20print.pdf](http://www.toollogo2010.mn/doc/Main%20results_20110615_to%20EZBH_for%20print.pdf) (In Mongolian). P.61.

2) Dalaibuyan Byambajav. Christianity in Mongolia after socialism (사회주의 이후 몽골 내 기독교) [https://www.academia.edu/9339647/Christianity\\_in\\_Mongolia](https://www.academia.edu/9339647/Christianity_in_Mongolia)

3) Dalaibuyan Byambajav. Existential insecurity and social embeddedness: A study of Christian churches and believers in Mongolia // [https://www.academia.edu/25648151/Existential\\_insecurity\\_and\\_social\\_embeddedness\\_A\\_study\\_of\\_Christian\\_churches\\_and\\_believers\\_in\\_Mongolia](https://www.academia.edu/25648151/Existential_insecurity_and_social_embeddedness_A_study_of_Christian_churches_and_believers_in_Mongolia)

흥 활동이 성공하면서, 몽골의 제2 티베트 불교 부흥기를 맞이하게 됨.

- 2011년 기준, 5,000명의 승려, 170개의 티베트 불교 사찰이 생겨남.<sup>4)</sup>
  - 1930년대 이전보다 상당히 적은 수이지만, 단 20년 만에 이뤄낸 결과임을 고려한다면 단기간 내 티베트 불교 부흥을 이룬 것으로 평가됨.
- 2000년대 이후, 몽골 내 티베트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지 않는 샤머니즘 신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으며, 하늘, 대지, 산, 강, 나무 등 자연을 숭배하는 종교 단체가 늘어남.
  - 2000년대 초, 몽골 전역에 샤머니즘들이 유행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함.
  - 샤머니즘은 몽골의 태곳적 조상의 흔적과 잃어버린 역사 지식을 되찾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수용하기 시작함.
  - 이러한 흐름을 이용해, 몽골 전역에 샤머니즘을 주도하는 샤먼이 우후죽순 생겨났으며, 종교적 신앙보다는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‘가짜’ 샤먼들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.
- 자연을 숭배하는 몽골 샤머니즘 신자들은 몽골 내에서 벌어지는 환경 관련 이슈에 직접 관여하고, 집단으로 행동하기 위한 환경 단체를 설립하는 활동을 벌임.
- 기독교의 경우, 1990년대 이후 외국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되기 시작함. 몽골 내 불교, 샤머니즘 신자들은 국가의 정체성과 역사 인식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며 기독교 도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섬.
  - 기존 몽골 종교인들은 예상치 못한 기독교의 부흥을 견제했으며, 몽골의 전통 가치를 해할 수 있는 위협 요소로 인식함.
  - 현재의 통계상 기독교 신자들은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으며, 소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설립하고 설교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.
- 몽골 내 기독교는 러시아 정교 교회, 가톨릭 성당, 그리고 개신교나 복음주의 선교사들로 구성됨.
  - 러시아 정교 교회는 기독교 중 신자 수가 적으며<sup>5)</sup>, 몽골 내에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.
  - 가톨릭은 바티칸 수교협정 이후, 몽골에 도입됐으며, 1996년 처음으로 울란바토르에 성 베드로와 성 바울 성당(Catholic Cathedral of Saints Peter and Paul)이 설립됨.
- 지난 25년간, 기독교 선교사들은 국가 전역에 교회를 설립하고, 성경이나 다른 문헌들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출판하기 시작함.
  - 선교사들은 몽골어 예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목사들을 교육함.

4) Sukhbaatar D. Vzrozhdenie buddhizma v Mongolii - dostyazheniya i oshibki. <http://savetibet.ru/2011/04/18/mongolia.html> (In Russian).

5) Istoriya pravoslaviya v Mongolii. <http://www.pravoslavie.mn/istorprav.html?did=80> (In Russian).

- 기독교 선교를 위해, 라디오,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으며, 지역 발전을 위한 현금 모금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.

### 3 전망과 시사점

**☞ 몽골 내 종교인들의 사회 참여는 각 종교의 입지를 강화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으나 일부 종교는 사회 이슈에 깊게 관여하고, 종교적 활동 범위를 벗어나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우려**

- 티베트 불교는 몽골인의 정체성과 몽골의 가치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는 전통 종교로써 자리매김하였지만, 최근 몽골이 티베트 지도자인 달라이 라마 14세의 사회 활동을 용인하면서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임.
- 현재 티베트 불교의 사회 활동은 몽골 정부 입장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봐야 하는 가장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. 몽골 정부는 티베트와 연관된 외교적 마찰을 해소하기 위해, 달라이 라마 14세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국내 티베트 불교 지도자를 발굴하려는 움직임 보임.
- 샤머니즘 종교인들은 내부 국가주의자들과 연합해 정치적 문제에 관여하고 있으며 광산 관련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.
- 기독교인들은 종교 부흥이 더 확산되고 있지 않지만, 다양한 사회 분야에서 소외 계층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. **EMERiCs**

#### 출처

- Khun am, oron suutsny 2010 ony ulsyn toollogyn ur dun, <http://bit.ly/2cyvZTl> (In Mongolian).
- Dalaibuyan Byambajav. Christianity in Mongolia after socialism, <http://bit.ly/2c42jST>
- Dalaibuyan Byambajav. Existential insecurity and social embeddedness: A study of Christian churches and believers in Mongolia, <http://bit.ly/2cyw7T9>
- Khun am, oron suutsny 2010 ony ulsyn toollogyn ur dun, <http://bit.ly/2cu4yeE> (In Mongolian).
- Istoriya pravoslaviya v Mongolii. <http://bit.ly/2cKjA3u> (In Russian).